Catholic

청년주보

제1085호
2019년 8월 25일(다해)

연중 제21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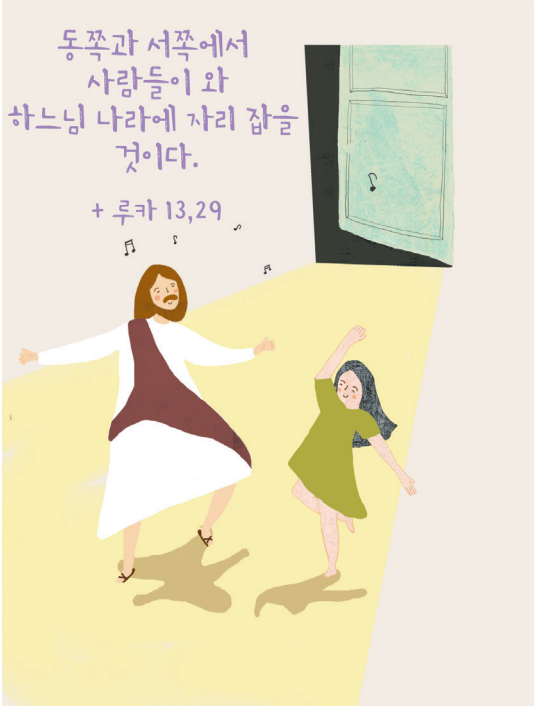


그림 | **김 로사**

입당송 시편 86(85),1-3 참조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이사 66,18-21

화답송 시편 117(116),1.2ㄱㄴ(◎ 마르 16,15 참조)

◎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

○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

제2독서 히브 12,5-7.11-13

복음환호송 요한 14,6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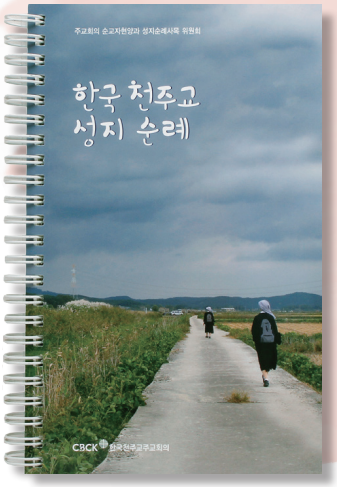
복음 루카 13,2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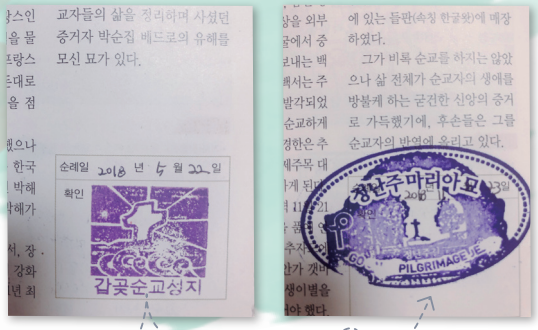
영성체송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한국의 천주교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하고 싶은데 어떤 곳이 있고, 어디에 있지?" 하고 궁금해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지순례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국의 천주교 성지순례」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난 2011년 8월 발행되었고 올해 6월 개정 증보판이 나온 「한국 천주교 성지순례」는 총 167곳의 성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지 주소와 설명이 있는 성지 소개문과 스탬프를 받을 수 있는 순례 확인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활용해 성지를 순례하며 신앙 선조들의 숨결을 느껴 보는 건 어떨까요?





영혼과 마음의 소리에 귀기울이기

이희천 프란치스코 신부
통합사목연구소 부소장

몇 해 전 수도회 사제 서품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간 그 성당에는 안내하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시간을 잘못 알아서 30분이나 늦게 도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을 찾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애쓰다 위층 성가대석에서라도 미사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위층에는 출입문조차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한 번 더 문을 열어보았는데, 이번에는 문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그 문은 밀어야 열리는 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성전 문을 열어본 경험이 있었다면 쉽게 열고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문이었기에 문 여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 잠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이끄시기에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오히려 그 문은 우리 쪽에서 잠그거나 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예수님에게서 오지만, 구원의 여부는 우리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을 열 수 있는 능력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 문을 열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고 그 문을 여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며 감히 그 문을 열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바라시지만, 내가 그분께 문을 열어 드리지 않는다면 구원은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도 자주 그 좁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불의를 일삼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을 모르는 이,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 세례 유무, 교회 내 신분이나 직책, 교무금이나 봉헌금의 많고 적음, 신앙생활의 기간, 봉사활동의 열심 정도도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주지 못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지만, 모두가 좁은 문으로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좁은 문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쉽고 편안하고 남들도 다 가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구원과 심판을 먼 훗날의 일로 생각하고, 일상생활에 파묻혀 정신없이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이 심판의 때이기에 신앙인은 매번 새롭게 회개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냥 나 좋을 대로 살 것인지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것인지... 또한 이 결단은 단 한 순간의 결정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부족하기만 한 우리에게는 너무도 무거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자꾸만 사랑으로 재촉하며 그 문 가까이 이끕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 영혼과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영혼에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며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을 비워내고 우리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당소식 _ 한강성당

한강성당 청년부에서는 특별한 여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낚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배낚시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술이 필요하듯 사람을 낚기 위해서도 기다림과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사회교리를 쉽게 옮겨 놓은 책 <DOCAT>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복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을, 이어서 주변 환경을, 마지막으로 세상 전체를 바꾸어 볼까요?

8.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필수인가?

정의를 외치는 아모스

저는 양을 치고 무화과나무를 가꾸어 먹고 살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과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물질의 풍요는 정신의 빈곤을 가져오기 쉽듯이 윤리와 사회 기강은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향락에 빠져 있었지요. 저는 이스라엘의 위선과 고집에 대해 엄하게 예언했고 무엇보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 나 자신을 바쳤습니다.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저는 그들에게 눈엣가시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개혁의 소리와 건전한 비판이 체제에 대한 도전과 반역의 행위로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의 쓴소리는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지요. 입에 발린 소리는 우선 듣기 좋지만,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이끄는 유혹임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관심, 당신은 어떤 상황인가요?

내가 책임질 삶도 버거운데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DOCAT 솔루션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일정한 가치 태도와 신념을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와 본질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사람' 안에서 그분을 찾고 (마태 25,40 참조), 그분을 추종하고, 그분을 닮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현존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본래 존엄성을 재발견하고, 탐욕과 죄에서 해방되어 이웃에게 봉사하고, 공동체가 평화와 정의 안에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사회를 주시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양심의 목소리를 냈을 때 질타를 받을까 두려워요

DOCAT 솔루션

하느님의 계명,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이 아닐까요?

현대의 갈등과 사회적 변혁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완수 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인용할 수 있는 완벽한 처방 방법으로 사회 교리서를 교회가 손에 쥐여 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양심이 더해져야 합니다. 양심의 목소리는 책임 있는 결정을 위한 훌륭한 논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시각에서 보면 양심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하느님의 계명과 이 시대의 곤경을 바라보며 형성하지 않으면, 모든 나쁜 것을 위한 쓸모없는 변명만 늘어놓게 됩니다.

어떤 분야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요?

DOCAT 솔루션

예수님은 정의에 마음을 크게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 가난한 사람, 병자 등 약자를 향한 자애로운 사랑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하셨습니다. 사랑보다 더 깊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작은 이'를 간과하지 않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친절과 화해와 평화 등의 생활방식을 모색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도록 초대됩니다. 그분의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그대로 닮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해 봅니다.

참조_「DOCAT」 306,307,309항

DOCAT이 선택한 사회 문제의 명언

거룩함은 하느님을 허용하는 것, 그분의 삶을 내 삶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 '천주교 서울 순례길' 선포 1주년 기념

2019 청소년 · 청년 순례길 걷기 이벤트

9월은 모진 박해 속에서 '피'로써 신앙을 증거한 순교자들의 정신을 기리고 본받는 한국 천주교회의 고유한 '순교자성월'입니다. 특히 오는 '9월 순교자성월'은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 선포 1주년을 맞이하는 달입니다.

지난해 9월 14일, '천주교 서울 순례길'은 아시아 최초!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천주교 서울 순례길도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찾는 세계적인 순례지로서의 명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서울대교구 순교자현양위원회(위원장 정순택 주교)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자발적인 신앙의 수용, 박해와 순교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걷는 여정에 청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글_정우선 이레네 | 순교자현양위원회

Event 01 청소년 · 청년 순례길 걷고! 산티아고 Go!

'서울 순례길' 어플리케이션 다운 받고! 서울 순례길 천주교서울대교구
천주교 서울 순례길 3개 코스 모두 걷고!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걷는 기회도 얻자!

- 기 간 : 9/1(일) ~ 9/28(토)
- 대 상 :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기에 관심있는 청년(만 16세~34세) 누구나
- 경 품 : 스페인 왕복항공권(1인), 삼성노트북(1인) 외 다양한 상품
- 추첨일 : 순교자성월을 닫는 미사 9/29(일) 오후 3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Event 02 #박물관 해시태그 이벤트

#천주교서울순례길에 있는 **#천주교서울대교구역사관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방문하고, **#인스타그램**에 **#인증사진 #업로드**하여 **#이벤트참여**하고 **#커피**마시자

- 기 간 : 9/1(일) ~ 9/28(토)
- 대 상 :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걷기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
- 자세한 내용은 순교자현양위원회 인스타그램(@komar_seoul)에서 확인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검색창 : 순교자현양위원회** GO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02)2269-0413 / www.martyrs.or.kr

"하느님을 만나는 순간, (MOMENTO)"

말씀과 찬양과 쉼이 함께하는 시간!
그 순간(Momento)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보세요.

일시 8월 27일(화) 저녁 7시 30분
※ 매월 1회, 화요일 [9/24, 10/29, 11/26, 12/17]
대상 40세 미만의 청년 누구나
장소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홍대) 1층 카페

참가비 무료 **문의** 338-7832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260차 선택 주말 접수

일정 11월 1일 ~ 3일 (2박 3일)
장소 한남동 꼰벤뚜알 수도원 **금액** 140,000원
대상 20세 ~ 35세(1985년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접수 9월 4일 (수) 14시~ (선착순 마감) 청년부 홈페이지 (www.2030.or.kr)로 신청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편집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주보편집부/ 전화 : 02) 762-5071, 2/ 이메일 : mail@2030.or.kr/ 홈페이지 : www.2030.or.kr/ 주소 :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길 49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 인쇄 : 가톨릭출판사